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3.27

MARCH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505.00원 (+0.50원)

KOSPI
5,460.46(-181.75, -3.22%)

KOSDAQ
1,136.64(-22.91, -1.98%)

국고채 10년 금리
3.857(-0.004%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Global Macro Alert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 [전규연]

기업분석

E1	양호한 실적 전망과 경계심의 공존 [유재선]

산업분석

반도체	Trend Force 메모리 가격 전망치 상향 조정 [김록호]
반도체	Google의 Turbo Quant와 AI생태계 및 메모리 시사점 [김록호]
건설	해외EPC 4Q25 실발 분석: 좋은 실적 유지 중 [김승준]

Weekly

통신서비스	하루라도 빨리 통신장비주 사세요 [김홍식]
유틸리티	노후 석탄 폐지 일정 연기 가능성 [유재선]

글로벌리서치

미국 건설	엔저 자본과 미국 주택부족이 만났을 때 [하민호]
로빈후드	높아진 밸류에이션 매력도 [고연수]

단기투자유망종목

S-Oil, 삼양식품, SGC에너지, 더블유씨피, 오이솔루션, 셀비온, 피에이치에이

하나증권

2026년 3월 27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Macro Alert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

Econom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conomist 전규연 kychun@hanafn.com

트럼프 지지율은 재집권 후 최저치. 미국 경제 충격은 우려보다 적을 것

이란 전쟁 여파로 트럼프 국정 지지율이 재집권 뒤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정책 분야는 1) 인플레이션, 2) 경제/고용인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폭등하며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시선이 커지고 있다. 미국 휘발유 리테일 가격은 2월 말 대비 37% 상승하며 갤런 당 $4에 이르렀다. 이란 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제한적이다. 직접적으로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아시아, 역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과 달리 미국은 석유 순수출국이며, 개인소비지출 중 에너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물가 충격이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경기 하방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틀란타 연은 GDP Now는 미국 1분기 GDP를 전분기연율 2.0%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 빈곤 가구의 비자발적 지출 늘어나며 K자형 경제 구도는 심화

실제로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는 시장 예상과 달리 급증하며 충분한 상황이며, 예년 대비 휘발유 재고 수준도 높다. 시의적절하게 베네수엘라산 중질유가 미국으로 향하면서 미국 내 에너지 공급 차질은 제한될 것이다. 다만 유가는 미국의 수급과 무관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에너지 지출 증가는 불가피한 사항이다. 미국 에너지 빈곤 가구(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이 중간값의 2배 초과)의 81%는 소득 하위 40%에 집중되어 있고, 에너지 빈곤 가구는 가처분소득의 25%를 에너지 비용에 지출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지닌다. K자형 경제 구도가 심화될 공산이 크다.

전쟁 이후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행태 변화. 투자 지출 늘어날 듯

한편 전쟁으로 인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에너지 기업들의 심리는 크게 개선되고 있다. 댈러스연은이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실시한(3/11~3/19) 에너지 기업 서베이를 보면, 에너지 기업 활동 지수는 25년 4분기 -6.2P에서 26년 1분기 21.0P로 반등했다. 3월부터 원유 시추 공수 가동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미국 셰일기업들의 기존 유정 BEP는 평균 $43 수준으로 전쟁 이전에도 생산을 이어갈 유인이 있었으나, 신규 유정의 BEP는 평균 $66으로 기존의 유가 레벨에서 신규 투자를 진행할 유인이 없었다. 금번 서베이에서 셰일기업들은 6개월 후 WTI가 $78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업 중 47%가 올해 시추를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란 전쟁이 공급 과잉에 허덕이던 원유 시장을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한 만큼, 단기적으로 미국 셰일업계의 투자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둔화를 투자가 일부 상쇄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2026년 3월 27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E1 (017940)

양호한 실적 전망과 경계심의 공존

BUY (유지)

목표주가(12M)	145,000원(상향)
현재주가(3.26)	101,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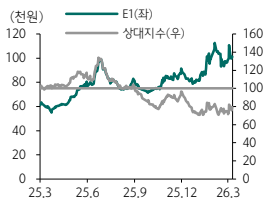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460.46
52주 최고/최저(원)	112,500/55,000
시가총액(십억원)	694.9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6,860.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6.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5
외국인지분율(%)	6.42
주요주주 지분율(%)	
구자열 외 10 인	45.39
신영자산운용	5.13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9,818.0	9,880.4
영업이익(십억원)	317.5	319.7
순이익(십억원)	131.4	156.6
EPS(원)	16,545	20,539
BPS(원)	302,642	323,345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P	2026F
매출액	7,827.7	11,192.4	10,392.5	10,436.5
영업이익	93.2	217.6	324.1	254.4
세전이익	282.9	108.3	186.0	148.0
순이익	213.2	62.9	104.8	99.9
EPS	31,076	9,164	15,276	14,562
증감률	50.28	(70.51)	66.70	(4.67)
PER	2.00	7.50	5.45	6.87
PBR	0.26	0.28	0.32	0.37
EV/EBITDA	9.52	11.05	8.85	9.92
ROE	13.90	3.82	6.16	5.62
BPS	240,377	246,026	257,413	268,140
DPS	5,150	3,450	4,550	4,55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목표주가 145,000원으로 상향, 투자의견 매수 유지

E1 목표주가 145,000원으로 기존대비 45.0% 상향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2026년 예상 BPS에 목표 PBR 0.5배를 적용했다. 4분기에 자회사의 비용 인식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기말 배당은 주당 4,100원으로 결정되었고 기준일은 4월 2일이다. 별도 배당성향은 중간배당 포함 24.4%로 전년대비 4.5%p 상승하면서 DPS가 전년대비 1,100원 증가했다. 배당성향이 기존 정책인 별도 15%보다 높게 결정된 것은 연결 배당성향 25% 이상 분리과세 요건 충족 목적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과 보유 자사주 15.72% 처분 방안은 향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LPG 시장 진출 국내 신규 LNG발전소 건설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2026년 기준 PER 6.9배, PBR 0.4배다.

4Q25 영업이익 273억원(YoY +295.2%) 기록

4분기 매출액은 2.9조원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했다. 원/달러 평균 환율이 상승했지만 LPG 가격 하락과 판매량 감소로 가스 부문의 외형이 둔화되었다. 판매실적의 경우 내수가 소폭 부진했고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수출의 경우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다. 전력은 평택 발전소 신규 인수 영향의 기저효과가 사라진 가운데 10월 예방정비로 인한 이용률 하락으로 감소했다. 금융 자회사는 금융상품평가 및 처분이익 증가로 매출이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273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295.2% 증가했다. 발전소 정비 영향으로 인한 전력사업 감익, 유통업 적자전환, 금융업 적자폭 확대를 가스사업 흑자전환으로 만회했다. 가스 부문은 조달원가 개선 등을 통한 트레이딩 수익성 제고로 이익이 성장했다. 전력은 SMP 약세와 이용률 하락으로 감익이 불가피했다. SMP는 상반기까지 낮은 수준이 예상되나 하반기부터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은 점차 회복될 수 있다. 금융 자회사는 일부 손상 인식으로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세전이익은 기타영업외수익 파생상품 영향으로 적자를 지속했으나 규모는 전년대비 축소되었다.

LPG 가격 상승은 1분기 실적에 긍정적. 당분간 중동 영향 지켜봐야할 것

최근 중동 이슈로 LPG 가격이 급등했다. 1분기 파생상품 관련 이익 증가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다. LPG 물량 중 중동산 LPG 비중은 3~40%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중국향 트레이딩 물량으로 판단되며 국내 판매는 북미산이기 때문에 조달 관점에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한편 국내 석화용 LPG 공급이 줄어들 경우 일정 부분 공급물량 감소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 한국가스공사향 열조용 LPG 공급 증가 등으로 일부 만회가 가능할 수 있으나 민수용 가격 인상 부담 등을 감안하면 국내 사업도 비용과 마진 측면에서 경계 요소가 존재한다. 당분간 중동 이슈의 종료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6년 3월 27일 | 산업분석_Industry Research

반도체

Overweight

Trend Force 메모리 가격 전망치 상향 조정

1Q26F: 예상대로 진행된 가격 상승폭 상향 조정

Trend Force에서 2026년 1분기 DRAM과 NAND 가격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최근 스마트폰 업체들의 낮은 가격 저항과 이에 기반한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예상했던 수순이다. 구체적으로 **DRAM은** Blended ASP 기준 PC용 DRAM 가격을 기존 50~55%에서 110~115%로 상향했고, 서버용 DRAM은 기존 60~65%에서 93~98%로 상향했다. 모바일 DRAM은 기존 45~50%에서 58~63%로 조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체 DRAM의 Blended ASP는 기존 55~60%에서 93~98%로 상향했다. **NAND도** 대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eSSD 가격은 기존 33~38%에서 75~80%로 상향, TLC/QLC NAND 가격도 기존 30~35%에서 75~80%로 상향했다. eMMC는 30~35%에서 95~100%, 클라이언트용은 기존 40~45%에서 105~110%로 조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전체 NAND의 Blended ASP는 기존 33~38%에서 85~90%로 상향했다. PC용 DRAM의 가격 전망치 상향폭이 컸다. PC OEM들의 가격인상은 25년 4분기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더욱 빠르게 수용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Q26F: 모바일용 DRAM 가격 전망치 대폭 상향

2026년 2분기 메모리 가격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었다. **DRAM은** Blended ASP 기준 PC용 DRAM 가격을 기존 10~15%에서 40~45%로, 서버용 DRAM 가격은 기존 10~15%에서 43~48%로 상향했다. 모바일(LP5X)도 기존 18~23%에서 93~98%로 조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전체 DRAM의 Blended ASP도 기존 13~18%에서 58~63%로 상향됐다. **NAND** 또한 eSSD는 기존 15~20%에서 68~73%, TLC/QLC NAND는 기존 15~20%에서 60~65%로 상향했다. eMMC는 기존 20~25%에서 75~80%, 클라이언트용은 기존 20~25%에서 70~75%로 상향했다. 이를 기반으로 전체 NAND의 Blended ASP는 기존 18~23%에서 70~75%로 상향되었다. 모바일용 DRAM의 가격 전망치 상향폭이 컸는데, 예상보다 낮은 스마트폰 업체들의 가격 저항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NAND는 중간값 기준 eMMC의 가격 전망치 상향폭이 가장 컸다. 최근 주요 NAND 업체들의 TLC/QLC로의 전환으로 인해 eMMC 공급부족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Q26F: 추가 상향 조정 가능성 상존

2026년 3분기 메모리 가격 전망치를 신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DRAM**은 PC/서버/모바일 모두 3~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전체 DRAM의 Blended ASP 상승폭도 3~8% 상승으로 제시했다. **NAND**의 경우, eSSD 가격 상승폭을 13~18%로 가장 높게 제시했고, TLC/QLC와 eMMC, 클라이언트용은 모두 5~10% 상승으로 제시했다. 전체 NAND ASP는 8~13% 상승할 것으로 발표했다. 26년 3분기는 1분기와 2분기의 높은 가격 상승폭을 거치면서 상승폭 자체는 둔화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B2C 업체들의 낮은 가격 저항과 2026년 연중으로 공급부족이 지속될 것을 고려하면, DRAM의 가격 상승폭 상향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판단된다.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RA 김영규 kyg1019@hanafn.com

2026년 3월 27일 | 산업분석_Industry Research

반도체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3월 26일

삼성전자(005930)
BUY I TP 300,000원
CP 180,100원

SK하이닉스(000660)
BUY I TP 1,450,000원
CP 933,000원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RA 김영규 kyg1019@hanafn.com

Google의 Turbo Quant와 AI생태계 및 메모리 시사점

Turbo Quant: 추론 병목현상 줄이기 위한 압축 기술

Google이 최근 공개한 Turbo Quant는 LLM 추론 과정에서 가장 큰 병목 현상 중 하나인 KV Cache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양자화(Quantization) 기술이다. 기존 모델(예: FP16, BF16)은 KV Cache를 저장할 때 토큰당 16비트를 사용하지만, Turbo Quant는 이를 4비트 이하로 압축하면서도 성능 저하를 최소화한다. KV Cache를 압축하기 위한 기술은 Nvidia의 NVFP4, Microsoft의 DeepSpeed 등도 이미 존재했다. 여타 압축기술과의 차별화 포인트는 압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밀도 하향 및 오류 발생을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를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하면서 여타 업체들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일례로 Google은 자사 모델인 Gemma뿐만 아니라 경쟁사 모델인 Mistral에도 이 기술을 적용해 성능을 증명했다.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이유는 하드웨어 제조사(Nvidia 등)가 자사 GPU 드라이버나 라이브러리에 Turbo Quant 연산을 가속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할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이퍼스케일러 등의 고객들은 비용 효율화 가능

해당 기술은 추론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메모리를 효율화시킬 수 있다. LLM 서비스 운영 시 GPU 메모리(HBM)는 크게 두 영역이 차지한다. 모델 가중치 (Weights: 모델 자체의 크기(고정값))와 KV Cache(사용자의 질문과 답변이 길어질수록 늘어나는 영역(가변값))이다. 기존 FP16 방식에서는 문맥이 길어질수록 KV Cache가 모델 가중치보다 더 많은 메모리를 점유하기도하면서, 이를 일반 메모리 및 스토리지로 오프로드했다. 이론적으로 이를 4비트로 줄이면, 동일한 메모리 용량에서 수용 가능한 컨텍스트 길이가 4배 늘어나거나, 동시 접속자(Batch Size)를 4배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 감소와 서버 구축 비용(CAPEX) 절감으로 직결될 수 있다. 이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인프라 투자 효율(ROI)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 진입장벽 낮아져 전체 수요 증대 가능성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불확실하다. 해당 기술의 검증 및 확장 속도도 불명확하다. 만약에 압축 기술이 보편화되었을 때 일어날 변화를 HBM과 일반 DRAM, 스토리지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Turbo Quant와 같은 기술은 압축된 데이터를 풀고(Dequantize) 연산하는 과정이 필요해 HBM 커스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 업체는 로직 다이에 가속 엔진(Hardware Accelerator)을 직접 심어, GPU로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메모리 단에서 압축/해제를 처리하는 'PIM(Processor-in-Memory)' 기술 고도화가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용량보다는 대역폭, 즉 속도를 올리기 위한 경쟁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DRAM의 경우, 워크로드되는 용량이 축소될 우려가 상존한다. 다만, 고객사 입장에서 당장 메모리 용량을 축소시키기 보다는 남는 공간에 4배 이상 많은 사용자 질문(Batch)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운영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데이터를 압축하고 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려면, 일반 DDR5보다 대역폭이 높은

MRDIMM이나 SOCAMM2 같은 고성능 규격의 수요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론 워크로드에서 스토리지는 주로 모델의 가중치를 불러오거나 체크포인트를 저장하는 용도였다. 하지만 압축 기술은 스토리지를 확장된 메모리로 쓰게 만든다. 단순 저장용 저가 SSD보다는 읽기 속도가 극단적으로 빠른 NVMe Gen5/Gen6 SSD의 수요가 중요해진다. 즉, '단순 용량'보다는 '메모리처럼 작동하는 스토리지'로서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HBF 상용화를 앞당길 가능성도 상존한다.

결론적으로 압축 기술은 이미 기존에도 존재했던 기술이고, 해당 기술을 모든 업체가 사용하거나 보편화할 가능성 역시 미지수다. 만약 해당 기술이 중장기적으로 보편화되어 비트당 수요가 효율화되면, 메모리 비용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AI 서비스의 전체 사용량 및 DRAM과 스토리지의 절대적인 수요량을 감소시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판단한다.

2026년 3월 27일 | 산업분석_Update

건설

Overweight

해외EPC 4Q25 실발 분석: 좋은 실적 유지 중

4Q25 실적 분위기: 좋은 실적 유지 중

유럽/일본사 모두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대부분 증가했다. 매출액에서는 TR(+51.8%yoy)과 치요다(+78.0%yoy)가 전년동기대비 크게 증가했다. 치요다의 경우 미국 골든패스LNG의 수정 계약으로 1회성 매출액 및 이익이 반영된 결과다.

실적발표 특이사항1: 전통 에너지 관련 수주

이번 분기는 전통 에너지 수주가 대부분이었다. 테크닙에너지는 카타르 NFW를 수주(1Q26 인식 예정)했으며, 테크니몽은 1Q26 47억유로(중동 화학 등) 수주를 예고했다. 사이펨은 4Q에 카타르 해상(51억달러), 사우디 해상(6억달러), 튀르키예 해상(4.3억달러) 등 회사가 전략 방향으로 재시한 해상EPC 다수 수주했다. JGC는 사우디에서 가스/오일 분리시설 확장공사를 수주했다. 전반적으로 친환경, 신재생 쪽 보다는 가스, O&G에서의 수주가 나타났다.

실적발표 특이사항2: 유럽 2026년 가이던스 제시(성장), 일본 가이던스 상향

유럽EPC사들인 2026년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가이던스에서 매출액 증가가 돋보이는 기업은 테크닙에너지(+19.7%), 테크니몽(+7.1%)이며, 사이펨과 TR은 2025년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을 제시했다. 이익률은 전반적으로 2025년에 비해 약 0.5%p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주에서는 테크닙에너지와 테크니몽이 수주에 대한 자신감을 비쳤다. 테크닙에너지는 상반기까지 수주잔고를 240억유로로 제시하면서 4Q25 160억유로 대비 80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테크니몽도 1Q26에만 47억유로 수주를 예고했으며, 파이프라인 607억유로로 보면서 수주 환경에 긍정적이었다. 일본사들은 다소 가이던스 조정이 있었다. JGC는 진행률 조정에 따라 매출액 가이던스는 하향했지만, 원화 약세, 판관비 감소 등에 영향으로 이익은 상향했다. 치요다는 골든패스LNG 수정 계약에 따른 일회성 매출액 및 이익 증가의 결과로 가이던스를 상향했다.

기업별 특이사항: SMR에 관심

유럽EPC사와 일본EPC사들도 SMR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프랑스기업인 테크닙에너지는 프랑스 국영기업인 EDF와 Nuward라고 하는 SMR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이며, SMR을 설계하는데 적극 참여 중이다. 이탈리아의 사이펨과 테크니몽은 Neocleo와 협업, 사이펨은 부유식 해상 SMR 개발에 참여하며, 테크니몽은 NEXT-N이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개발에 참여 중이다. 일본 JGC는 미국 Nuscale에 지분투자를 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EPC 수주권 확보에 노력 중이다.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하루라도 빨리 통신장비주 사세요

통신서비스 Weekly | 2026.3.27

Analyst 김홍식 proll@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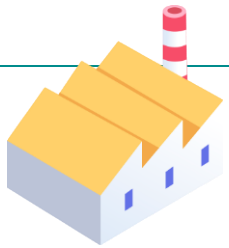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주간 동향 및 코멘트

다음주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지난주 트럼프가 2028년 LA 올림픽에 맞춰 3개의 6G 상용 디바이스를 준비해달라고 퀄컴에 요청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행정부의 결정은 2027년 통신장비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3.5G에서 4G로 이어지던 당시와 상황이 흡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2027년도엔 6G Ready 장비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6G ITU 표준은 2030년에나 제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장비 규격은 한참 전에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간 표준 제정 역할을 수행하는 3GPP에선 이미 2025년부터 6G 표준에 나선 가운데 대략적인 표준이 이미 윤곽을 드러낸 상황이며 2027~2028년 후보 기술 검증에 나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6G는 빨라야 2029년에 상용 서비스에 돌입할 것이나 결국 당초 예상대로 2027~2028년도엔 6G Ready 장비가 본격 도입되고 2029~2030년에는 6G 전용 장비가 채택되는 흐름이 나타날 전망이다. 5G SA에서 6G로 연결되는 빅사이클이 출현이 예상된다.
- 최근 국내 통신장비업체 주가가 높은 주가 상승을 기록 중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5G SA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800MHz에 달하는 역대급 주파수를 2026~2028년 공급하기로 한데 이어 AT&T가 2026~2030년간 370조원에 달하는 CAPEX 집행을 선언하였다. 일부 투자가들은 아직까지 국내 통신장비업체들의 수주 성과가 없으므로 매수하기에 부담이 따른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이미 상당부분 성과는 나타났으므로 통신장비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투자가라면 그 시점을 앞당길 것을 권한다. 네트워크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미국 버라이즌 역시 2026년 4분기 이후 대규모 CAPEX 집행에 나설 공산이 크며 국내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을 고려하면 국내 통신 3사 역시 5G SA로의 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HFR, 쏠리드를 제외하면 미국 AT&T 공급 경험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이번엔 삼성전자가 AT&T 벤더로 꼽힐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RFHIC/KMW의 에릭슨 벤더 선정 확률이 높아졌다. 글로벌 경쟁 환경 및 규제 상황을 감안할 때 국내 통신 3사가 5G SA로 전환하고 2027년부터 CAPEX 증대에 나설 가능성 역시 충분한 상황이다. 모든 정황은 2027~2030년 통신장비 업종 빅사이클을 가리키고 있다. 더 이상 팩트를 체크하는 과정은 통신장비주를 높게 매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하루라도 빨리 통신장비주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다.
- SKT가 3/26일 주총에서 1.7조원에 달하는 자본잉여금의 이익 잉여금 전환, 비과세 배당 실시, 자사주 잔여분 1%의 소각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4월 1분기 배당부터 비과세 배당이 진행될 예정이며 1분기 DPS는 800~900원, 연간 DPS는 3,600원, 자사주 소각 규모는 1,4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총 주주환원금액은 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세후 배당수익률이 4.5%에 달하는 데다가 총 배당금이 7,500억원으로 3사 중 월등이 높고 주주환원규모 역시 9천억원으로 통신 3사 중 가장 많을 것으로 보여 이제 국내 통신 3사 시가총액 경쟁은 일단락 될 것이란 판단이다. 과거 경험상 총 배당금 및 총 주주환원금액이 시가총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2026년도엔 SKT가 통신 서비스 업종 시가총액 1등을 굳힐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 다음주 통신서비스 업종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LGU+>KT 순으로 제시한다. 통신 3사 중에선 SKT를 Top Pick으로 제시한다. 비과세 배당이 확정됨에 따라 세후 기대배당수익률이 4.5%에 달하는 상황이며 4월 1분기 DPS 발표를 통해 올해 DPS 성장에 대한 강한 확신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통신장비 업종에선 RFHIC/KMW/쏠리드/이노와이어리스/오이솔루션을 최선호 종목으로 제시한다. 광통신장비 업체에 이어 무선 부문으로의 수혜 확산 기대감이 커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노후 석탄 폐지 일정 연기 가능성



유틸리티 Weekly | 2026.03.27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주간 리뷰 및 관심종목

주간 리뷰

- 주간 커버리지 합산 수익률은 시장을 0.9% 하회했다. 25일 종가 기준 WTI는 91.5달러/배럴(WoW -4.7%), 미국 천연가스는 3.0달러/mmbtu(-2.0%), 아시아 LNG 현물은 20.0달러/mmbtu(-0.9%), 호주산 유연탄은 133.1달러/톤(+1.5%), 원/달러 환율은 1,504.9원(-0.2%)을 기록했다. 휴전 가능성 언급으로 에너지 가격 강세가 진정되었다. 관건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재개 여부다.
- 필리핀이 동남아 국가 중 처음으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한국도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LNG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전과 석탄 발전을 확대한다. 정비 중인 원전의 경우 계획대로 정비를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재가동할 계획이다. 미세먼지가 적은 날에는 기존 80%를 상단으로 제한하던 석탄발전 출력 제약 조치를 완화한다. 해당 조치로 발전용 LNG 사용량을 6.9만톤/일 중 20% 수준인 1.4톤/일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되었다. 추가로 2011년 이후 15년만에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실시하는 등 에너지 절약 조치가 시행된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실내온도 제한, 개문냉방 단속 등 민간 영역에서도 조치가 취해질 개연성이 존재한다.
-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일정 연기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2026년 말 기준으로 폐지 예정인 석탄발전소는 태안 2호기, 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총 3기 1,500MW다. 이후 2027년 5기 2,620MW, 2028년 3시 1,500MW, 2029년 6기 2,400MW 등 설비용량 감소가 집중되어 있었으나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급이 안정적인 유연탄 의존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여지가 있다. 발전정비 업체 입장에서 볼 때 화력 정비 매출 감소 시기가 일정 부분 늦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 한국 정부는 3월 20일 카타르 라스 라판 LNG 생산시설 파손으로 인한 공급 차질이 있더라도 한국에 대한 LNG 장기도입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카타르 측에 당부했다. 국내외 언론에서는 카타르의 LNG 공급불가 선언을 보도했지만 한국가스공사와 산업부에 따르면 아직 공식적인 코멘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기간 동안 시장 공급의 20% 가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아직 영향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심화 여부는 시간이 결정할 이슈다. 2025년 기말 기준으로 확인되는 한국가스공사의 LNG 장기 도입계약 3,135만톤 중 카타르 물량은 연간 610만톤이며 비중은 19.5% 가량이다. 장기계약 외에 현물, 직도입 등을 감안한 전체 수입량 대비로 보면 카타르 물량 비중은 소폭 낮아진다. 카타르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약 수급 문제가 있더라도 물량 확보 전략 차원에서 사전에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언론에 따르면 청정수소발전 입찰 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 3,000GWh 대비 1/3 수준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용률 75% 가정 시 낙찰되는 설비용량은 150MW 내외로 추정된다. 국산 그린수소 사용 및 국산 기자재 적용 요건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습이다. 가격 부담에 더해 물량 조달이 기존 계획과 달라질 경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 REC 매매 계약 지연으로 사업 좌초 위기에 놓였던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의 입찰 제한 기간이 2년으로 조정되었다. 기존 운영규칙 상 입찰 제한 기간은 5년이지만 2년으로 크게 단축됨에 따라 향후 사업 재개 가시성이 높아졌다.
- 온실가스 배출권(KAU25) 가격은 26일 종가 기준 15,700원으로 전주대비 1.9% 하락, YTD 51.0% 상승했다.

종목 코멘트

- SGC에너지(Top Pick): 유가 대비 석탄가격 상승폭 작아 발전 부문 이익률 개선 국면. 향후 데이터센터 사업 가치 부각 가능
- SK가스(Top Pick): 프로판 가격 상승으로 1분기 파생상품평가이익 개선 가능. 국내 LPG 공급 가격 동결 국면은 우려 요소
- E1: 프로판 가격 상승은 기타영업외손익에 우호적. 한편 납사 수급 지연 시 국내 NCC향 프로판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 존재
- SK이터닉스: 유가 상승은 재생에너지 투자 심리에 긍정적. 다만 금리 상승 시 투자비 부담 증가 가능. 최대주주 역할 기대

미국

2026년 3월 27일 | 글로벌 산업분석

미국 건설

엔저 자본과 미국 주택부족이 만났을 때

일본 홈빌더들의 미국 진출 증가

최근 일본 홈빌더들의 미국 진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과거에도 일본 주택업체들은 JV나 소규모 인수 형태로 미국 시장에 진출해 왔지만, 딜 규모와 빈도 측면에서는 제한적이었다. 세키스이 하우스의 MDC 인수(49억달러, 24년1월)를 시작으로, 스미모토 입업의 트리 포인테 홈즈 인수(45억달러, 26년2월), 다이와 하우스 계열의 유나이티드 홈스 인수(2.2억달러, 26년2월)와 JK Monarch 편입, 이이다 그룹의 라이트 홈즈 지분 51% 취득(26년3월) 등이 연달아 발표됐다. 이로써 일본계가 보유한 미국 빌더 수는 현재 30여 개, 트리 포인테·UHG 딜 완료 시 미국 단독주택 시장 점유율은 약 5.5~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자금이 미국 주택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일본 자본이 미국 홈빌더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네 가지 정도로 판단된다. 1) 일본 국내 주택 수요의 장기 둔화다. 인구 감소+고령화를 바탕으로 이어진 높은 주택보급률은 주택 착공을 이미 1990년대 대비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일본 주택업체들이 국내 시장만으로는 의미 있는 이익 성장을 만들기 힘든 구조다. 2)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의 착공 부진으로 400만~500만호 수준의 공급 부족이 누적되어있다.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선벨트 등의 주요 성장 지역들은 중장기 주택 수요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시장이다. 3) 일본의 초저금리환경은 엔화표시 자금의 해외 운용 유인을 높이고 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고금리와 토지비 상승으로 자본 비용이 높은 시기임에, 일본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기 자본을 제공하는 투자처로 자리 잡기 용이한 국면이다. 4) 미국 주택건설업은 소수 대형사를 제외하면 여전히 지역 중소 빌더 중심의 분절된 산업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 업체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로컬 플레이어들을 순차적으로 편입하는 전략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시장으로 평가된다.

아직까지는 규제없이 시장 확대 중

일본계 자본 유입은 미국 주택공급 사이클의 변동성을 일부 흡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외 정책 측면에서 주택이 필수재이자 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인 만큼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에 대한 정치·사회적 논의가 중장기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일본 업체의 진출이 주택 공급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강해 규제 강화보다는 중립적인 정책 기조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본계 빌더의 시장 지배력 확대, 특정 지역에서의 토지 개발, 모듈러 주택 도입 과정에서의 인허가·품질 기준 등이 규제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2026년 3월 26일 | Global Equity

로빈후드(HOOD.US)

높아진 밸류에이션 매력도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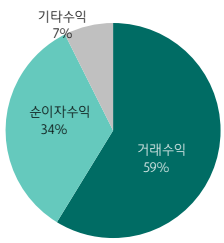
TP(컨센서스)	121.0 USD
CP(03.26)	72.5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ASDAQ GS
산업 분류	금융
주요 영업	캐피탈 시장
홈페이지	www.robinhood.com
시가총액(십억USD)	65.4
시가총액(조원)	98.5
52주최고/최저(USD)	153.8599/29.66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12.12
블랙록	7.06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6.4)	(40.9)	62.2
상대	(1.3)	(40.7)	46.8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2,951	4,473	5,482	6,506
영업이익	1,054	2,094	2,686	3,410
순이익	1,411	1,883	2,204	2,705
EPS(USD)	1.6	2.1	2.4	2.8
EPS(YOY, %)	(355.7)	31.4	15.4	20.4
ROE(%)	19.2	22.0	21.8	23.1
PER(배)	24.4	55.2	30.7	25.5
PBR(배)	4.1	11.2	5.8	4.9
배당률(%)	0.0	0.0	0.0	0.0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고연수 yeonsookoh@hanafn.com

2026년 2월 지표는 크립토 거래대금 위주로 양호

최근 로빈후드 주가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10월 고점대비 약 52% 하락했으며, 최근 몇 주간은 높은 변동성 속에서도 횡보하는 모습이다. 이는 매크로 환경뿐 아니라 크립토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로빈후드의 2월 거래 지표를 살펴보면, **크립토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다. 주식 거래대금은 전월대비 15% 감소, 옵션 거래량은 전월대비 10% 감소, 예측시장 거래량은 전월대비 29% 감소했다. 반면, 크립토 거래대금은 전월대비 9% 증가했으며, 2025년 월평균대비로도 23%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동사의 수익 구조상 옵션(43%)과 크립토(34%)가 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립토 업황 회복은 실적과 멀티플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자산은 제도권에 편입되는 중

디지털자산 시장은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2025년 7월 GENIUS Act 통과로 스테이블코의 준비자산 요건 및 감독 체계가 정립되면서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다만,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전반을 규율하는 CLARITY Act는 하원 통과 이후 현재 상원 심의가 진행 중이며,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의 리워드(이자) 지급 허용 여부다. 리워드가 제한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발행 주체의 수익성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용자 유입 둔화 → 생태계 확장 제약 → TAM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근 논의는 결제·송금·플랫폼 활동과 연계된 보상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상원 통과 이후 하원 조정 및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

이와 함께 SEC는 현재 토큰화 혁신 면제 제도(innovation exemption) 도입을 추진 중이며, NASDAQ 역시 토큰화 주식 거래를 위한 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CLARITY Act 법안의 통과 여부가 크립토 업황 회복 시점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12M Fwd PER 31배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짐

현재 주가 조정은 규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세부 내용과 통과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디지털자산 관련 종목 전반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법제화가 완료될 경우,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관 투자자 참여 확대,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재편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크립토 거래대금이 안정화될 경우, 전통 브로커리지와 크립토를 동시에 영위하는 루빈후드의 실적 가시성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12M Fwd PER 30.7 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Oil (010950.KS)	3/23	111,800	112,300	0.45%	•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삼양식품 (003230.KS)	3/23	1,151,000	1,188,000	3.21%	• 밀양 2공장, 작년 12월부터 용기면 포함한 6개 라인 모두 가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 • 추가 생산 기지 건립 가능성 + 소스 및 신사업 기대
SGC에너지 (005090.KS)	3/23	62,500	63,000	0.80%	• REC 확대, 구역전기 전환,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으로 2030년까지 이익 성장 모멘텀 뚜렷 • 전체적인 배출권 공급 축소와 수요 증가로 배출권 가격 상승 전망
더블유씨피 (393890.KQ)	3/23	13,230	14,000	5.82%	• ESS 중심 출하 회복과 분리막 가격 인상 사이클 진입으로 2026년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 • SK온향 ESS용 LFP 분리막 공급 추진 등으로 고객사 다변화와 중장기 성장 여력 확대 중
오이솔루션 (138080.KQ)	3/23	33,900	39,950	17.85%	• AT&T 2,500억 달러 역대 최대 CAPEX 계획 발표, 망 투자 논리 구체화되는 중 • 수급이 서버향 트랜시버에서 프론트홀향 트랜시버로 본격 확장 진행 중
셀비온 (308430.KQ)	3/23	30,900	31,000	0.32%	• Lu-Pocuvotide가 임상 2상에 성공, 2026년 조건부허가 신청 및 3상 진행 예정 • 2월 학회에서 부족했던 데이터(OS, Mpfs)를 5월, 6월 학회나 파트너링을 통한 공개 기대
피에이치에이 (043370.KQ)	3/23	12,630	12,490	-1.11%	• P/E 4배 후반, 순현금이 시가총액의 75%, 배당수익률 3.3%, 자기주식 7.0% 보유 • 2026년 미국 및 인도 법인의 확대로 5% 성장할 전망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90%	+6.29%p	+55.27%	+26.0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3/9	98,000	100,900	2.96%	•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13.3조원 제시
POSCO홀딩스 (005490.KS)	3/9	353,500	342,500	-3.11%	•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KS)	3/9	73,300	78,200	6.68%	• 호주 Senex 가스전 증산과 미얀마 가스전 안정적 판매 증가로 에너지 실적 개선 기대 • 신규 팜 농장 인수 및 정제 사업 확대에 따른 식량 사업 규모 확대 기대
RF머트리얼즈 (327260.KQ)	3/9	51,900	68,500	31.98%	• AI 서버·데이터센터용 광통신 패키지(루멘텀향 포함) 수요 급증으로 실적 개선 기대 • 중국산 부품 제재 및 피지컬 AI 시대 통신용 광모듈 수요 확대 기대
KB금융 (105560.KS)	2/9	149,300	152,200	1.94%	• 4분기 실적의 특징은 수수료이익 대폭 증가, 기말배당 큰폭 확대, 주주환원 재원 확보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도 긍정적 요인
키움증권 (039490.KS)	2/9	405,000	418,500	3.33%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0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기아 (000270.KS)	1/12	133,200	154,700	16.14%	• 셀토스 풀체인지 모델 출시 및 판매 본격화로 신차 효과 통한 물량 확대 지속 기대 • 이익 개선및 그룹미래 모빌리티 사업구체화 통한 밸류업 기대
삼성전자 (005930.KS)	1/2	119,900	180,100	50.21%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1/2	651,000	933,000	43.32%	• 4Q25 Review 매출액 32.8조원(YoY +66.0%), 영업이익 19.2조원(YoY +137.0%) 기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한국항공우주 (047810.KS)	1/2	114,400	188,000	64.34%	• 일회성 비용 부재와 완제기 수출 부문의 일시적 믹스개선으로 3Q25 수익성 개선 • 20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S-Oil (010950.KS)	1/2	83,000	112,300	35.30%	•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1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1.49%	+2.23%p	+31.49%	+2.23%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I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26,320	-11.0%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3,600	-10.3%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24,615	-3.0%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20,400	56.9%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76.48	0.9%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60.57	32.7%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399.02	17.7%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4.47	12.4%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22	3.23	3.24	3.25	3.26	3.27	3.28
		▪ 일본 2월 전년대비 전국 CPI (1.30%, 1월 1.50%) ▪ 유로권 3월 전월대비 S&P 글로벌 제조업/종합 PMI (잠정)(51.4/50.5, 2월 50.8/51.9)	▪ 미국 3월 3주차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10.5% 이전치 -10.9%)	▪ 미국 3월 3주차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 210K, 이전치 205K)	▪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최종) (E 54.0, 이전치 55.5)	
3.29	3.30	3.31	4.1	4.2	4.3	4.4
		▪ 일본 2월 실업률 (E--, 1월 2.7%) ▪ 중국 3월 제조업 PMI (E--, 2월 49) ▪ 유로존 3월 전월대비/전년대비 CPI (잠정) (E--/--, 2월 0.6%/1.9%)	▪ 한국 3월 전년동기대비 수출 (E--, 2월 28.70%) ▪ 중국 3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E--, 2월 52.1) ▪ 미국 3월 ADP취업자 (E--, 2월 63K) ▪ 미국 2월 전월대비 소매판매 (E--, 1월 -0.20%) ▪ 미국 3월 ISM 제조업 (E 52.2, 2월 52.4)	▪ 한국 3월 전월대비/전년대비 CPI (E--/--, 0.3%/2.0%) ▪ 미국 2월 4주차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미국 3월 비농업부분 고용자수 변동 (E 51K, 2월 -92K) ▪ 미국 3월 ISM 서비스 지수 (E 55.5 2월 56.1)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